

하는 사랑

JANUARY 2026
vol. 535

1

cover story
돌탑과 햇무리
2018년 기상기후사진전 <입선> 신규호



ISSN 3058-8758[Print]
ISSN 3058-8766[Online]



기상청 날씨알리미 앱

가장 빠르고
가장 편하게
날씨를 확인하세요



하늘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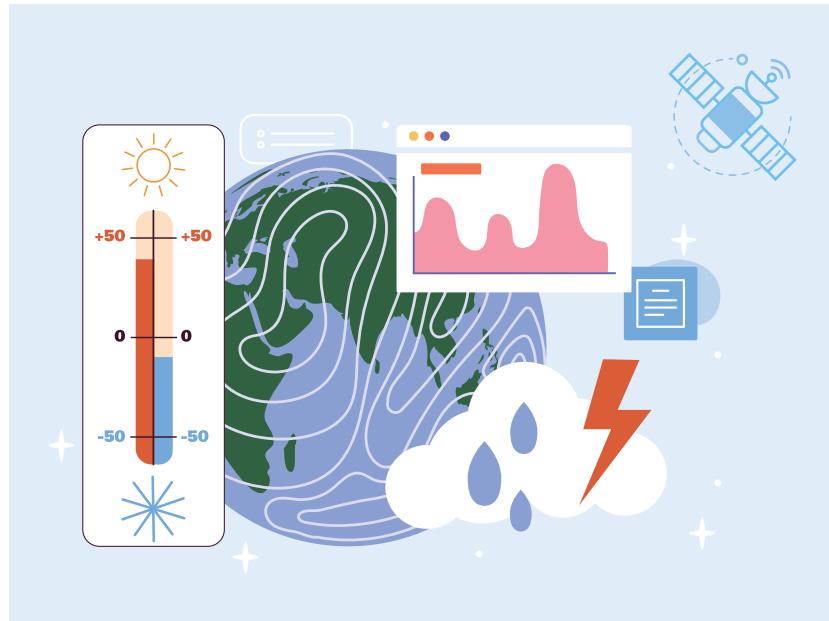
vol. 535

1

JANUARY 2026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11~14층)
전화 (02)2181-0356
팩스 (02)836-5472
E-mail kmanews@korea.kr
발행처 기상청
발행일자 2026년 1월 5일
발행인 이미선
편집장 민현주
편집기획 김승민, 마재준, 김지은
디자인/인쇄 사)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인쇄사업단

Contents



Special Theme

포커스 뉴스

02

신년사

04

2026년 기상청 살림살이

06

2025 기상 10대 뉴스

08

기상청사람들_ 정선 다목적 지하심부 암반실험실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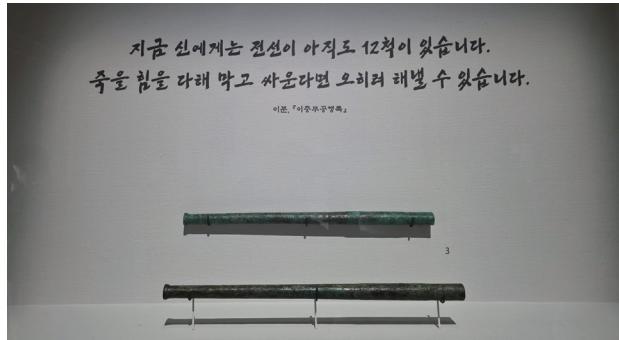
cover story

돌탑과 햇무리

2018년 기상기후사진전 <입선> 신규호



기상청에서 발행한 「하늘사랑」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이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진·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l.or.kr



Weather Talk

- 10 붉은 말의 해, 흔들려도 앞으로
- 12 영화_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 14 맛있는 계절_ 겨울 보약 '무 전'
- 16 어느 날씨 기자의 하찮은 자부심

Theme Story

- 18 WCC-SF₆ 국제 온실가스 교육훈련 10년: 전 지구 온실가스 관측 역량을 키우다
- 20 청년인턴이 본 기상청 이야기: 청년인턴! REAL 공직에 뛰어들다
- 22 전북을 달리는 기상관측차량의 1년간의 이야기
- 24 탐험 온 울리미즈_ 지진검인증실

Report

- 26 Photo briefing 사진으로 보는 기상청 소식
- 27 Platform
- 28 오늘, 당신의 날씨





2026년,
말의 힘찬 발걸음처럼
새로운 희망을 향한 도약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기상청 가족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급변하는 기후 환경 속에서도 기상청의 예보를 신뢰하며 재난 대응에 함께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밤낮없이 안전을 지키고,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해준 자랑스러운 기상청 가족 여러분께도 따뜻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전례를 찾기 힘든 극한호우, 기록적인 폭염과 한파 등 잣아지는 위험기상 속에서도, 우리 기상청은 단 한 순간도 긴장을 놓지 않았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언제나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위기를 함께 극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노력이 큰 힘이 된 지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2026년은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말’은 용기와 속도, 앞으로 나아가는 진취적 에너지를 상징해 왔습니다. 불의 기운을 품은 병오년의 뜨거운 에너지는 우리가 기후위기의 거센 파도를 두려움이 아닌,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넘어서야 한다는 시대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저는 기상청의 제17대 청장으로 취임하며, “기상청이 단순히 예보를 전달하는 기관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감시하고 대응하는 국가의 중심 허브가 되겠다”는 다짐을 국민 앞에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올 한 해 우리가 반드시 실천하고 중명해야 할 소명입니다.

2026년, 우리는 본격적으로 미래를 향한 도약을 시작하려 합니다.

첫째, 국민이 누릴 기본 안전을 최우선으로, 기상청 본연의 업무를 더욱 단단히 하겠습니다. 재난성 호우·폭염·가뭄 등 심화되는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특보 및 재난문자 운영을 빈틈없이



강화하고, 위험기상 정보를 국민들께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전달 방식도 다양화하며, 위험기상을 더욱 신속하게 탐지·예측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전달체계도 고도화하겠습니다.

둘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가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과학 기반의 감시·예측 정보를 개선하겠습니다. 한국형 핵심기후변수 선정을 통해 기후변화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표준 시나리오 생산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녹색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기상지원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셋째, AI 대전환 등 다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추어 기상업무 전반을 혁신하겠습니다. AI 기반의 기상·기후 예측모델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위험기상 탐지 및 예측에도 AI 기술을 접목하여 기상·기후 업무 전반에서 'AI 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

과학 기반의 기후위기 대응을 통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기상청이 되도록, 저부터 앞장서서 모든 구성원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상청 직원 여러분!

2026년 병오년의 뜨거운 에너지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위기를 이겨내는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의 힘찬 발걸음처럼 두려움 없이 전진하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올해의 모든 날들이 따뜻한 햇살과 함께 기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년 1월 1일

기상청장 이 미 선

2026년 기상청 살림살이

기상·기후 감시 및 예측 역량을 강화하고, 기상·기후 및 지진 분야 선도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편성된
2026년 기상청 주요사업 예산을 소개합니다.



2025년 **4,698**억 원 →

2026년 **5,490**억 원 + 기후대응기금 9억 원(기상청 소관)
(전년 대비 792억/16.9% 증액)

* 역대 최초 단년도 예산 5,000억 원 초과 편성

**위험기상과 지진
조기탐지 및 기상·기후
예측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기상레이더 운영(90억 → 111억)**
 - * 위험기상 감시 강화를 위한 기상레이더 관측망 구축 및 연직바람관측장비 운영을 통한 한반도 입체적 고층기상관측 강화 등
- **해양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140억 → 146억)**
 - * 해상 위험기상 조기 감시와 품질 높은 관측자료 생산을 위한 해양기상관측시설 및 장비 확충·교체·운영
-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50억 → 51억)**
 - * 신속하고 사각지대 없는 지진정보 전파를 위한 지진경보(현장경보, 조기경보) 시스템 개발 및 서비스 개선
- **기상재해 사전 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R&D)(121억)**
 - * 위험기상 예보의 정확도 개선을 위한 기상재해 사전 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 수치예보기술 개발

**국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적
기후정보 제공에
앞장서겠습니다**



- **기후위기 대응 국가 기후예측시스템 개발(R&D)(48억 → 73억)**
 - * 기후변화 가속화로 극단적 이상기후가 빈발함에 따라 3개월~10년 기후예측정보의 매년 제공을 위한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
- **지역 기후정보 생산 및 활용, 기후예측 선진 서비스 체계 구축(64억)**
 - *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탄소중립 정책을 지원하고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 인증체계 구축, 기후변화 과학지식 보급을 위한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반 구축
 - * 선진 기후예측 생태체계 구축 및 운영과 기후 및 이상기후 예측기술 개선·개발
 - * (기후대응기금)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 시 활용 가능한 지도 기반의 기후변화 상황지도 서비스 제공
- **국가기후자료관리 및 서비스 체계 구축(정보화)(32억 → 36억)**
 - * 기후자료 품질관리 및 데이터 개방을 위한 통합기상기후데이터시스템 인프라 도입

**미래 국가기상기술을
선도하겠습니다**



-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기상청)(R&D), (195억 → 1,111억)**
 - * 기후위기 시대, 기상기후 감시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해 세 번째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위성 5호' 개발
-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R&D)(328억 → 348억)**
 - * 한국형 기상·AI 기반모델 개발 등 핵심적인 기상·기후 연구개발
- **국가레이더 융합 기반 위험기상 대응 기술개발(R&D), 미래수요 대응 기상 장비 및 활용기술 개발(R&D)(60억, 신규)**
 - * 지상원격탐사자료, 신기술(AI 등)을 접목한 맞춤형 레이더 융합활용 정보 서비스 기술개발 지원
 - * 관측의 시·공간 제약 없이 정밀관측을 수행할 수 있는 원격·이동 관측장비 개발, 국민 생활환경으로 물리적 관측 범위 확대를 위한 국산 장비 및 분석기술 개발

**최근 5년간
세출예산 변화 추이**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총 예산*	4,537	4,697	4,482	4,698	5,490
주요사업비	3,298	3,429	3,208	3,458	4,198
일반회계					
일반	1,368	1,499	1,509	1,344	1,290
R&D	1,111	1,095	885	1,318	2,264
정보화	751	762	733	720	580
ODA	68	73	81	76	64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9	30	19	14	14

* 총예산은 주요사업비+기본경비+인건비 포함, 기후대응기금(9억 원) 미포함

2025 기상 10대 뉴스

2025년 기상청의
크고 작은 이슈를 모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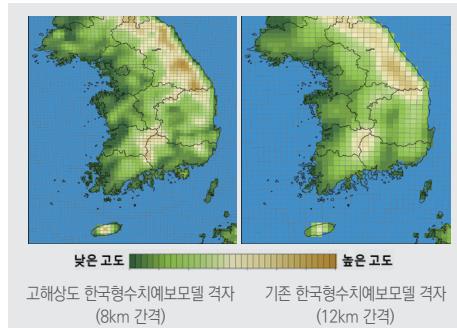
1 제17대 이미선 기상청장 취임 사상 첫 여성 기상청장

2025년 8월 18일, 이미선 기상청장이 제17대 기상청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 청장은 1992년에 기상청에 입직해 총괄예보관과 예보정책과장,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관측기반국장, 지진화산국장, 광주지방기상청장, 기후과학국장, 수도권기상청장 등 주요 직책을 두루 거쳤습니다. 이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기상청은 기후위기 감시와 예측을 총괄 지원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 기상청의 비전은 ‘과학 기반의 기후위기 대응 허브’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더 세밀한 수치예보, 더 꼼꼼한 날씨 예측!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고해상도(8km) 한국형수치예보모델 운영 시작

기상청은 2025년 5월 14일부터 기존 12km에서 한층 상세해진 8km 격자간격의 한국형수치예보모델(KIM, Korean Integrated Model)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기존 모델보다 50% 더 촘촘해진 8km 해상도는 세계에서 현업 운영 중인 전지구수치예보모델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한반도 위험기상에 최적화한 물리과정 장착으로, 한반도 강한 강수사례의 강수량 예측성도 개선되었습니다.



3 호우 긴급재난문자 전국 확대 시행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 재난문자(CBS) 전담 인력 12명 추가 확보



기상청은 2025년 5월 15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된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더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재난문자 전담 인력 12명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철저한 호우 감시와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문자 운영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지역 방재 유관기관과 더욱 체계적인 지역 맞춤형 소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4 여름철 전국 평균기온, 지난해 기록을 경신하며 역대 1위 등극

2025년 여름철 전국 평균기온은 25.7°C로 가장 더웠던 지난 2024년(25.6°C)보다 0.1°C 높아 2년 연속 역대 최고를 경신했고, 평년보다 2.0°C 높았습니다.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과 중위도 지역의 정체된 고기압 구조 형성으로 6월 말부터 이른 더위가 나타났으며, 7월 하순부터는 티베트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더욱 상승하며 8월 하순에도 더위가 지속되었습니다. 폭염과 열대야도 주요 기록을 경신했는데, 대관령은 관측 이래(1971년~) 처음으로 폭염이 발생했고, 서울은 여름철 열대야일수가 46일 발생하며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 여름철 고온 원인 모식도

5 기상청, 2025년 재난관리평가 최우수(대통령 표창) 기관 선정

기상청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도('24년도 실적) 재난관리평가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 340곳(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중 중앙부처 최우수(대통령 표창)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관리 단계별(예방·대비·대응·복구) 주요 역량을 진단하는 종합 평가로서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고 있으며, 기상청은 이번 평가에서 호우 긴급재난문자 전국 확대 시행, 안전한국훈련 분야(우수기관), 기관장 재난관리 대응 역량,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 등에서 높은 평가점수를 받았습니다.



6 역대급 대형산불, 경북지역 5개 시군 산불 발생에 따른 기상지원

2025년 3월,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풍을 타고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전례 없는 확산 속도로 빠르게 번지며, 피해 면적이 9만 9천ha(산불 피해규모 역대 1위)에 달했습니다. 이에 기상청은 3월 21일부터 위기 대응 특별반을 편성하여 60회의 산불진화용 기상정보 등을 제공하였고, 대구지방기상청에서는 산불 현장에 전문인력과 관측차량을 파견하여, 현장 관측 수행과 50회의 현장브리핑 등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한 산불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 지원했습니다.



7 국립기상과학원, 세계기상기구와 '기상·기후 인공지능 글로벌 테크 포럼' 개최

국립기상과학원은 2025년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세계기상기구(WMO)와 공동으로 '기상·기후 인공지능(AI) 글로벌 테크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기업과 국내·외 학계 등에서 7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AI 초단기예보 모델 상호검증, 개발도상국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포럼에서는 5월부터 초단기 예보에 실시간으로 적용 중인 AI 모델 '나우알파(NowAlpha)'의 활용 성과도 국제사회에 공유했습니다.

8 제주공항 급변풍 탐지 공항기상라이다 국내 최초 도입

항공기상청은 제주국제공항을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급변풍을 보다 정확하게 관측하기 위해, 2025년 5월 31일 공항기상라이다(TDWL)를 국내 최초로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항기상라이다는 공항으로 진입하는 항공기의 이착륙 경로 10km 지점부터 상공 500m 구간까지의 풍향·풍속을 관측하고, 난류 및 급변풍 발생 위치와 강도를 실시간으로 탐지합니다. 또한, 기존 공항기상 관측장비(AMOS), 저층급변풍경고장비(LLWAS)의 바람자료와 통합한 급변풍 통합정보를 관제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현장 관제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돋고 항공기 안전운항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9 범부처 소통·협업으로 강릉 가뭄 공동 대응



2025년 여름, 강릉은 6개월 누적 강수량이 평년 대비 35.8%(9.11. 기준), 1개월 누적 강수량은 평년 대비 7.7%를 기록하는 등 강릉시에 기상가뭄을 비롯하여 생활·공업용수 가뭄, 농업용수 가뭄이 심화되면서 '가뭄 재난사태'가 선포(8.30~9.22., 24일간)되었습니다. 기상청은 「관제부처 합동 가뭄 TF」의 일원으로 가뭄 대응 관계기관에 기상가뭄 및 강수 현황·전망 등 기상정보를 매주(수시) 제공하고, 기상관측차량을 이용한 오봉저수지 현장 관측, 가뭄 대응 전담반 운영 등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으로 가뭄 공동 대응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10 도로위험(도로 살얼음·도로 안개) 기상정보 정규서비스 시작

기상청은 2025년 12월 15일부터 도로위험 기상정보와 도로기상 관측자료를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했습니다. 도로위험 기상정보는 '도로 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와 '도로 가시거리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내비게이션 앱과 도로전광표지판을 통해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누리집과 기상자료개방포털의 API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개방된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가 활용되어 도로 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상청 사람들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지진 실험실!

정선 다목적 지하심부 암반실험실 편

기상청 대변인실에서는 공식 유튜브 채널(youtube.com/@기상청)을 운영하며, '기상청 사람들'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기상청 사람들'은 기상청 직원들의 다양한 업무뿐만 아니라 그동안 외부에 알리지지 않은 휴먼 스토리까지 소개하는 콘텐츠입니다.



"지하 600m에 지진 실험실이 있다?" 지하 600m, 숫자만으로는 쉽게 상상되지 않는 깊이입니다. '이곳에서 기상청 직원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왜 하필 정선일까?'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제작진은 강원도 정선으로 향했습니다. 😊🚗

촬영 장소는 기초과학연구원의 정선 예미랩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예미산 아래에 있는 예미랩은 국내 유일의 대규모 지하 실험 시설로, 기존의 광산 간도를 활용해 조성되었습니다. 암흑물질과 중성미자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기상청은 이 시설의 일부 공간을 활용해 '지하심부 암반실험실'을 운영하며, 지진 관측장비의 성능을 검정하고 지진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



지하 600미터로 향하는 첫 관문

지하로 내려가기 전, 안전교육을 받고 안전화와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했습니다. 예미랩은 과거 광산으로 사용되었던 공간으로, 현재도 일부 구간에서는 철광석 채굴이 이뤄지고 있어 일반 연구시설보다 더욱 엄격한 안전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인원 확인과 무전기 점검을 마친 뒤, 케이지에 탑승해 지하로 이동했습니다. 케이지가 내려가는 동안 산소 농도를 알리는 알림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하지만 깊이 내려갈수록 알림음의 빈도는 점차 줄어들었고, 이내 사라졌는데요. 그 이유는 예미랩 내부의 환기와 공기 순환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깊은 지하에서도 산소 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지하에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대피소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최대 40명이 72시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물과 전기, 식량이 구비된 공간으로, 지하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대비 시설입니다. 지하 시설 내 화장실 역시 매우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는데요, 연구자와 작업자들이 장시간 머무르는 공간임을 고려한 세심한 관리가 돋보였습니다. 😊





지진 관측 실험의 최전선, 지하심부 암반실험실

기상청 지하심부 암반실험실에서는 크게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진 관측장비의 성능을 시험하고 검정하는 일, 또 하나는 정선특별관측소를 통해 실제 지진을 관측하는 일입니다.👍

실험실 내부에는 속도계와 가속도계 등 다양한 지진 관측 센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속도계는 지진의 발생 위치와 규모를 계산하는데 활용되고, 가속도계는 땅이 얼마나 강하게 흔들렸는지를 분석하는 데 주로 활용됩니다. 이 센서들이 수집한 자료는 기록계를 거쳐 기상청 서버로 실시간 전송되는데요. 담당자가 보여준 노트북 화면에서는 아주 작은 진동에도 파형이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가볍게 발을 디뎌도 미세한 변화가 관측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성능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인간 활동에 의한 인위적인 진동이 거의 없는 지하 600m 암반 위에 실험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하필 지하 600미터일까요?

지진 관측장비의 성능을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잡음이 거의 없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차량 통행이나 사람의 이동, 바람 같은 일상적인 진동도 관측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 600미터에 위치한 지하심부 암반실험실은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실험실에 있는 관측장비를 덮고 있는 보호 덮개 역시 온도, 기압, 습도 변화를 최소화해 일정한 관측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곳은 국산 지진 관측장비를 시험하고 실제로 활용해 볼 수 있는 'K-테스트베드' 역할도 하고 있으며, 기상청은 이를 통해 지진 관측 기술의 국산화와 고도화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지진재난문자, 우리의 안전을 지킵니다



우리가 지진의 흔들림을 느끼기 전 휴대전화로 받는 '지진재난문자'와 '지진 조기경보'는 모두 관측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촘촘한 관측이 중요합니다. 기상청은 현재 전국에 약 370개의 지진 관측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매년 40개소의 관측망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지하 600m, 쉽게 달을 수 없는 공간에서 기상청은 오늘도 지진을 관측하고 실험을 진행하며, 국민에게 전달되는 지진재난문자를 단 몇 초라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진은 예측할 수 없지만,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기상청의 지진 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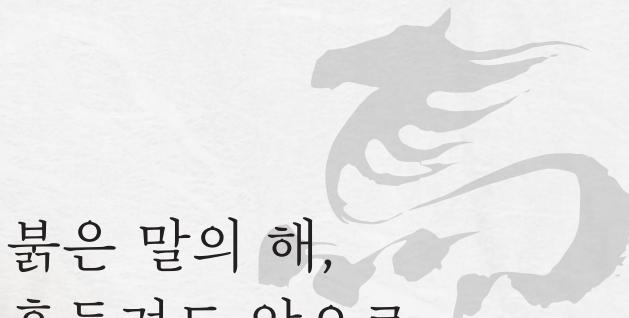
뒷이야기

기상청 지진 담당자들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에 대비해 일상 속에서도 휴대전화를 늘 가까이 두고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목욕탕을 갈 때도... 😊)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기상청 직원들에게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



다음번에 만나볼 '기상청 사람들'은 누구인지 기대 부탁드리며,
'기상청 사람들'을 포함한 기상청의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를 보고 싶다면 QR코드로 접속해 주세요!





붉은 말의 해, 흔들려도 앞으로

최서연 방송작기



經天緯地之才
補天浴日之功

이순신은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찢어진 하늘을 훠내고,
흐린 태양을 목욕시킨 공로가 있는 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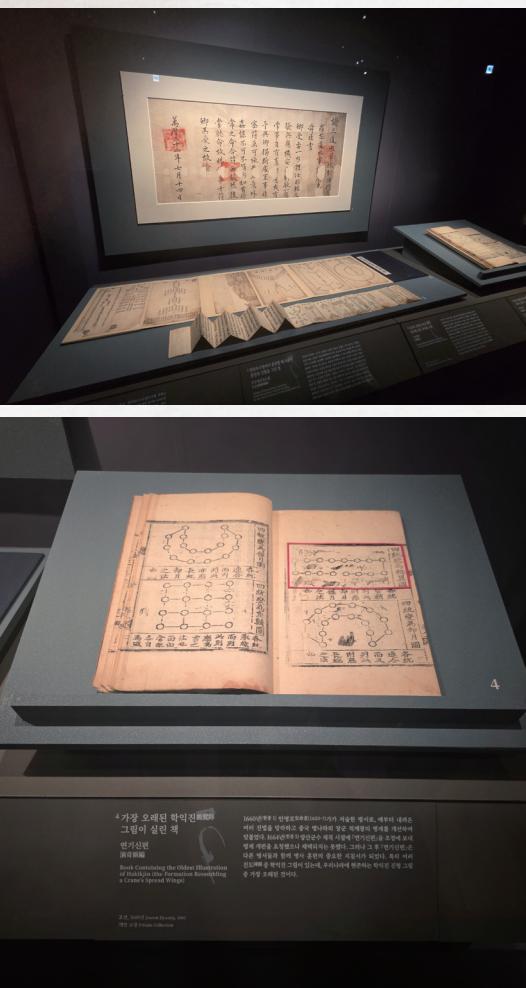
독자 여러분, 2026년 붉은 말띠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은 예로부터 힘, 속도, 용맹을 상징하지만 무엇보다도 누군가 그 등에 올라타 달릴 때 그 쓰임과 기개가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는 존재죠. 지난 역사 속, 말은 주로 무신(武臣)과 무인들에게 특별한 수단이었습니다. 무장의 기본 자격이자 사회적 위상과 무예 실력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말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 무과 시험 중 말에서 떨어져 낙마해 낙방한 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는 해군 쪽으로 진로를 틀고, 말보다는 배(船)와 조선 수군에 집중하게 됐죠. 놀랍게도 그는 한민족의 성웅 이순신 장군입니다.

저는 얼마 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우리들의 이순신’ 특별전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전시는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국보 15점, 보물 43점 등 총 369점의 유물이 한자리에 모인, 이순신 전시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가장 눈길이 가는 유물은 역시 전쟁터 한복판에서 이순신 장군이 직접 쓴 난중일기 친필본이었습니다.

난중일기는 7년에 걸친 전쟁 기록이지만, 날마다 첫 줄에 적힌 건 그날의 날씨였는데요. 맑음, 큰비, 바람 거센, 살을 에는 듯한 추위... 그러다 날씨가 크게 변화하는 날에는 '아침에 흐리다가 저녁에 비가 내렸다'고 자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일기로 기록된 총 1593일 가운데 42일을 제외하고 모두 날씨가 기록돼죠.

이순신 장군에게 날씨는 그만큼 전투의 변수이자, 사람을 살리는 정보였습니다. 극한의 전쟁터 한복판에서 기상을 면밀히 살피며 어찌하면 승리할 수 있을지 밤새 전략을 가다듬었겠죠. 그는 격렬한 전투의 기록과 더불어 위장이 쓰려 밥 한 숟가락 넘기기도 힘들었던 몸의 고통과 쓸쓸한 마음도 숨기지 않고 적어 내려갔습니다. 승리의 순간에도 쓰러진 병사 한 명을 잊지 못해 밤새 뒤편에는 모습도 남아 있습니다. 용맹한 장군이기 이전에, 늘 불안



했고 외로웠던 한 사람. 하지만 그런 고독을 그는 매일의 날씨와 사건 그리고 생각들을 기록하며 견뎌냈죠. 백의종군하라는 명을 받았던 날, 모욕과 억울함이 가슴을 후벼파던 그날에도 이순신 장군은 오늘의 날씨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배 열두 척만 남아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명량의 전장에서는 “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라고 쓰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꿨습니다.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순신 장군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지 않고 오히려 죽을 각오로 버텨낸 끝에 기적 같은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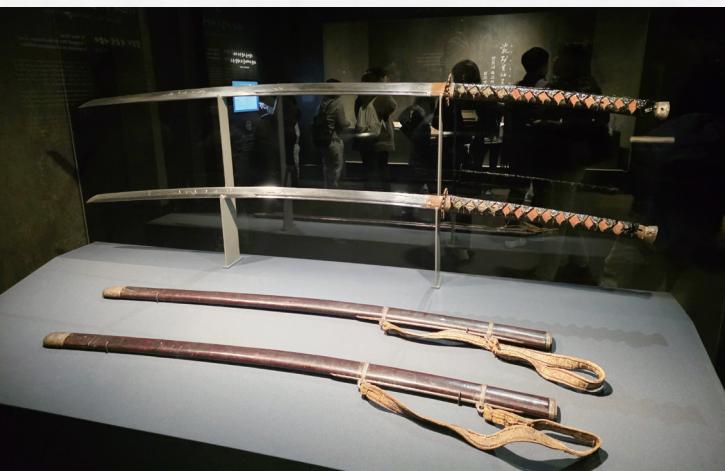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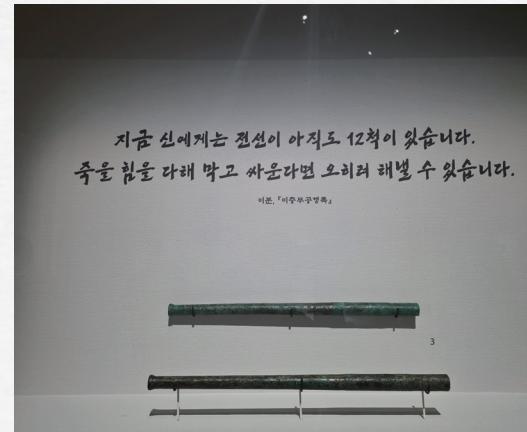
난중일기는 단지 전쟁의 기록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련에 짓눌려 무너질 만한 순간마다 꺾이지 않고 일어섰던 한 인간의 흔적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순신 장군은 왜적을 무찌르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낸 역사적 영웅이 됐죠.

만약 이순신 장군이 과거 무과 시험 도중 말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합격했다면 그의 운명은, 또 조선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만약 무과를 통과해 기마 군인으로 살았다면 그 능력은 육지 중심의 군사 커리어였을 테고, 아마 해전 영웅이 아닌 평범하거나 다른 무장이 되었을 수도 있었겠죠. 이순신 장군은 말타기에 실패했지만 좌절하지 않고 해군으로 방향을 틀었고, 그 결정과 적응이 후대의 ‘충무공’이라는 위상을 만든 게 아닐까요?

훗날 위대하다고 여겨지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성공이나 영웅성은 처음부터 모든 걸 잘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 다른 선택 그리고 새로운 길이라는 인생의 복합적 흐름의 산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6년 붉은 말띠해가 누군가에겐 기쁜 해일 수도, 누군가에겐 힘든 해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넘어지는 그 순간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꿔주고, 멈춰 선 시간이 더 단단한 도약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죠.

좋은 일이 찾아온다면 그 기세를 타고 더 멀리 달리시길... 혹여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온다면 그 역시 새로운 문을 여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매일의 날씨를 기록하며 흔들리지 않던 이순신 장군처럼 우리도 오늘의 하늘을 살피며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내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길 응원합니다. 붉은 말이 달리는 한 해, 모든 분들의 앞길 위에 따뜻한 바람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출처: 네이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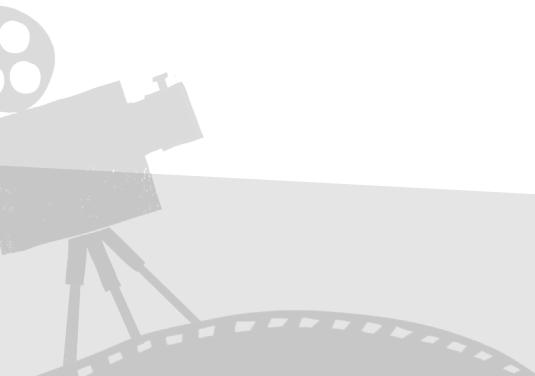
움직이지 않는 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2013)

김동진 작가

회사에서 장기 근속 휴가를 받아 일본 도쿄로 떠나는 길, 출국 심사를 마친 뒤 라운지에서 키보드를 꺼낸다. 7박 8일의 일정이다. 이 정도의 여정은 정말 오랜만이다. 떠나기 전, 주인공이 직감적인 결심으로 어디론가 떠나는 영화를 보고 싶었다. 그래서 고른 작품이 바로 지금 소개할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2013)이다. 미국의 코미디언이자 감독, 각본가인 벤 스틸러가 영화의 연출과 주연을 맡았다.

영화의 주인공 ‘월터 미티’는 회사의 주인이 바뀌고 종이 잡지의 폐간을 앞둔 ‘라이프’지에서 16년째 필름 사진 인화를 담당하고 있다. 이미 12년 전에 나온 이 영화에서도 종이 잡지와 필름 사진은 시대의 뒤안길 어딘가에 있는 것 같다. 영화 속 새 경영진은 ‘라이프’의 지면을 폐간하고 온라인에 주력할 것을 선언하고 대규모의 인력 구조조정을 한다. 그런 와중에 월터는 지면 마지막 호의 표지 사진을 사진작가 ‘숀 오코넬’(숀 펜)로부터 받아야 한다. 그런데 숀이 인편으로 보내온 필름 사진들 중에는 바로 숀이 직접 표지로 써 달라고 한 ‘25번 사진’이 없다. 회사에서 잘릴 위기에 처한 월터는 무작정 숀이 보내온 사진 속 단서를 수소문해 어딘가에 있을 숀을 찾아 떠난다.

월터가 일하는 잡지사 ‘라이프’의 모토는 영화에서 제법 중요하게 인용, 언급된다. ‘세상을 보고 장애물을 넘어 벽을 허물고 더 가까이 다가가 서로를 알아가고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다.’ 영화의 영어 제목(‘The Secret Life of Walter Mitty’)이 암시하듯 월터에게는 (공공연한) 비밀이 하나 있는데 바로 공상에 빠지는 것. 자기만의 상상 속에서 재난 블록버스터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수퍼히어로가 되기도 하며 호감이 생긴 회사 내 다른 직원과의 관계 진전을 상상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옆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도 못 들을 만큼 거기 빠진다는 것.



하지만 월터는 성실한 인물이다. 가게 지출 내역을 수기로 정성스럽게 기록하고 어머니와 여동생을 살뜰히 챙기는 건 물론이고, 회사에서도 사진작가 손이 월터에게만 연락을 취할 만큼 필름 사진을 담당하는 일에 있어서라면 신뢰받는 인물임이 영화에서 비친다. 다만 자주 소위 '명 때리기'를 하는 습관 때문에 어떤 이들은 수군거리기도 한다. 월터에게는 그런 이유가 있어 보인다. 스스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별로 대단한 걸 해본 적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 온라인 데이팅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서도 취미나 특기, 자기만의 경험 등을 적는 란을 모두 공란으로 해둔 그에게 인연이 찾아올 리는 없는 듯하다.

예상대로 월터가 손을 찾아 떠난 여정은 일생일대의 전환점이 된다. 거주지도 일정하지 않고 휴대전화도 쓰지 않는 그를 찾아 월터는 그린란드, 아프가니스탄을 거쳐 아이슬란드까지 간다. 그 여정들이 마치 월터를 기다려 왔던 것처럼, 마법 같은 일들이 펼쳐진다. 헬기에서 물건을 전달하기 위해 바로 아래 보트 위로 뛰어내리기도 하고 상어와 싸우기도 하며 소싯적 재능을 활용해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스케이트보드를 탄다. (이때 코너링을 위해 양 손바닥에 자갈을 넥타이를 찢어 묶는 장면이 인상적이다) 떠나본 적 없던 월터는,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 되자 곧장 어디든 몸을 싣는다. 월터에게는 처음인 것들 투성이다. 센 파도가 치는 아이슬란드 연안 어선에서의 선원들과의 대화도, 그린란드의 작은 펍에서 손의 단서를 쥔 누군가와 우여곡절 끝에 나누는 대화도 그에게는 낯선 사람들과의 우정 어린 교류를 쌓는 과정이다.



출처: 네이버



출처: 네이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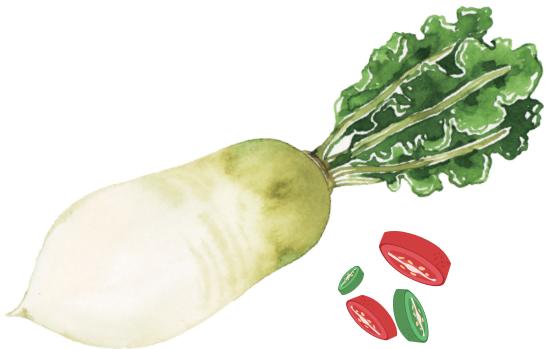
출처: 네이버

몇 시간 뒤 착륙할 도쿄는 서울보다 조금 기온이 높다. 겨울보다는 따뜻하지만 늦가을의 찬바람이 느껴질 만큼은 된다. 이번 여행은 다분히 감정을 소진한 스스로를 위한 보상의 성격이 크다. 한 번의 여행이 인생 전체를 전혀 다른 경로로 틀어놓지는 않겠지만 어떻게든 그곳에서의 경험을 좋은 쪽으로 이끌 어떤 결기 같은 것을 다지고 있다. 월터가 이 륙을 앞둔 헬기에 몸을 실을 용기를 갖게 되는 데에는 호감을 갖고 있는 세릴(크리스틴 위그)이 자신에게 데이비드 보위의 'Space Oddity'를 불러주는 상상을 한 것이 크게 작용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명 때리듯 무언가를 막연히 상상하는 일이 꼭 쓸모없는 일만은 아니겠다. 어쩐지 내게 도쿄는 그런 운명적인 사건은 아니더라도 제법 좋은 일이 벌어질 도시 같다. 무슨 노래를 들을지 고르는 동안 제법 날씨도 알맞을 것이다. 좋은 것을 보고 2026년에도 이 지면에 보다 좋은 영화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차가운 계절이 길러낸 따듯한 맛, 겨울 보약 '무 전'

이주현 푸드칼럼니스트



바람이 차가워질수록 더 맛있어지는 채소가 있다. '동삼(冬參)'이라고 불리는 무가 그 주인공이다. 무는 기온이 내려갈수록 맛이 달콤하고 시원해질 뿐만 아니라 영양도 풍부해진다. 1월에는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눈처럼 그리고 새해의 마음처럼 이 단정하고 꾸밈없는 무에 눈길이 간다.

무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식탁 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다. 김장김치, 반찬, 국 등 다양한 음식에 활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햅볕에 말린 무시래기, 무말랭이는 영양소가 몇 배나 좋아져 보석 같은 겨울의 식재료로 거듭난다. 게다가 무는 겨울이 오면 가장 중요한 행사인 김장 김치의 필수 재료가 아닌가. 이처럼 무는 조연으로서도 주연으로서도 부족함 없이 제 역할을 다하는 만능 식재료다. 단단한 무 안에 숨겨진 무궁무진한 매력을 살펴보자.

명나라 의학서인 '본초강목'에는 무를 '몸에 가장 이로운 채소'라고 소개했다. 무에는 비타민C와 함께 포도당, 과당, 칼슘 등 미네랄이 풍성하여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해준다. 무엇보다 무에 함유된 '다이제스트' 효소는 천연 소화제라고도 불릴 만큼 뛰어난 효능을 갖고 있다. 예로부터 전해지는 속담 중에 '떡 줄 놈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말이 있다. 이때의 김칫국은 빨간 나박김치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 조상들은 이미 떡을 먹고 체할 때 무김치를 먹으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무의 다이제스트와 아밀라아제는 소화를 돋기 때문에 속이 더부룩할 때 무를 먹으면 위가 편안해진다. 또한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무는 제철을 맞아 비타민C 함유량이 증가한다. 겨울이 오면 맛봐야 하는 제철 음식 중에 무를 빼놓으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무는 부위에 따라 맛과 식감이 차이가 있다. 무의 윗부분은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 샐러드, 무채, 동치미에 사용하면 좋다. 가운데 부분은 조직이 단단하기 때문에 뭇국, 전골, 조림 등에 사용한다. 끝부분은 매운맛이 세기 때문에 열을 가하여 조리하는 볶음 또는 무나물에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무는 단독으로 먹어도 영양이 좋지만 궁합이 맞는 식재료와 함께 하면 맛도 영양효능도 두 배로 좋아진다. 찬바람에 감기가 걸려 기침이 나면 무에 꿀을 곁들여보자. 무를 얇게 썰어 꿀에 재워 2~3일 숙성하면 무 꿀즙이 된다. 기침이 나는 증상을 호전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평소 간이 좋지 않다면 무와 배추를 챙겨 먹으면 간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준다. 특히 생선요리와 무는 최고의 궁합을 자랑한다. 생선조림이나 매운탕을 조리했을 경우 부족한 섬유질은 무가 보충해주며, 생선의 비린내를 잡는 데도 효과적이다.

무의 달콤한 맛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요리로 '무 전'만 한 것이 없다. 들어가는 주재료도 딱 세 가지로 단순하다. 무, 전분가루, 찹쌀가루를 준비한다. 가능하다면 생찹쌀가루를 쓰면 맛이 더욱 좋다. 무 300g 기준으로 전분가루 80g, 찹쌀가루 40g, 소금 5꼬집을 준비한다. 무의 식감을 살리고 싶다면 아주 얇게 채 썰거나 강판에 가는 것이 좋다. 또한 부드러운 식감을 원하거나 빠르게 요리하고 싶다면 믹서기를 사용해도 괜찮다. 무를 갈아 나머지 재료를 잘 섞은 다음에 기름을 두른 팬에서 전을 부친다. 무에 수분이 많아 모양이 잘 안 잡힌다면 접착제 역할을 하는 전분가루를 좀 더 추가한다. 무가 쉽게 탈 수 있으니 불은 중약불로 조절한다. 순식간에 곁은 바삭하고 속은 쫀득한 무 전이 완성된다. 담백하고 정갈한 맛이 마음까지 고요하게 가라앉힌다. 추운 날씨가 만든 단맛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녹여준다.

겨울 무는 참 묵묵하게도 자란다.

화려하게 눈에 띄지 않더라도
긴 기다림 속에서 우직하게
자라나는 무. 어쩌면 이 꾸준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새해가 시작되는
1월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하얗고 단정한 이 채소를 1월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식탁 위에 꼭 올리고 싶다.



겨울 무로 만드는 바삭쫄깃 '무 전'

▣ 필요한 재료

무 300g 기준으로 전분가루 80g, 찹쌀가루 40g, 소금 5꼬집

▣ 만드는 과정

- 1 무는 깨끗하게 세척한다. 고명으로 사용할 뜻고추, 흉고추를 준비한다.



- 2 무를 갈아서 준비한다.



- 3 분량의 전분가루와 찹쌀가루를 넣고 잘 섞어준다.



- 4 기름을 넉넉히 두른 팬에서 ③의 반죽을 부쳐 완성한다.



어느 날씨 기자의 하찮은 자부심



김홍찬 아시아투데이 기자

오전 6시. 출근 시간까지 아직 여유가 있지만 졸린 눈을 비비며 노트북 앞에 앉는다. 기상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매일 새벽 4시 20분에 올라오는 단기 전망을 들여다본다. 독자들이 출근 전 찾아보는 ‘오늘날씨’ 기사를 쓰기 위해서다.

기온, 강수량, 미세먼지 소식을 살피면서 그날 하루 사람들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한다. 얼음물과 부채를 든 건설 노동자들, 두꺼운 외투나 마스크를 챙기고 출근하는 직장인들. 그날 메인이 되는 장면을 연출할, 가장 중요한 정보가 제목과 첫 문장에 담긴다. 적절한 사진을 고르고 기사 송고까지 마치면 기자도 출근 준비에 나선다. 지난해 봄, 기상청을 출입하기 시작하고 만들어진 아침 루틴이다.

그날 아침에 전했던 날씨 소식은 하루 동안 일상의 ‘이유’가 된다. 누구는 자가용 대신 지하철로 출근길에 오르고, 각종 행사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날 할 업무를 계획한다. 사건과 사고, 사람 사는 이야기를 주로 다루는 사회부 기자로서 날씨로 인한 일상적인 장면에 눈이 간다. “오늘 비 온대.” 지나가는 이들이 하는 말을 듣고 불확실한 미래에 한줄기 ‘확실함’을 준 것만 같아 자부심마저 들기도 했다.

“미래의 일을 미리 알린다.” 기상청을 맡고 ‘예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기사에 썼다. 그도 그럴 것이, 단어 자체가 ‘일기예보’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19세기 영국 해군 함정 비글호의 선장이었던 로버트 피츠로이가 과거 기상 정보를 바탕으로 단기 기후를 전망하기 시작했고, 최초로 예보라는 표현을 썼다. 미신이었던 ‘예언’이나 인간의 의지에 가까운 ‘예고’와 구분하기 위해서다.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나 현재 진행 중인 일이 아닌, 순수하게 미래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기사는 날씨 예보밖에 없다. 마치 ‘신의 영역’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설렘도 느꼈다.



이런 감정을 잠시 접어뒀던 때가 지난해 여름이다. 6월부터 시작된 이른 폭염은 연일 ‘역대급’을 기록했다. 그뿐인가. 장마로 인한 폭우도 근 100년 동안의 기록을 갈아치웠다. 기온은 미리 전했던 예보 소식을 넘겼고, 강수량 역시 예상치를 웃돌았다. 심지어 같은 지역이어도 동네끼리 날씨가 극단적으로 다르기도 했다. 일상이었던 날씨는 한순간에 재난, 재해가 됐다. 사회는 온열질환과 호우피해로 무너졌고 시민들이 희생됐다는 쓰라린 소식을 연일 전했다. “이 정도는 아닐 줄 알았는데.” 예보 기사를 쓸 때 내가 상상했던 일상을 한참 벗어났다. ‘예상치 못한 날씨’에 의한 피해다. 예보하는 기상청과 이를 전달하는 기자 모두 마음이 무거웠던 여름이다.

죄책감은 자기보호를 위해 남 탓이 된다. “날씨는 결국 신의 영역인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아직 날씨는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정확한 전망을 내놓기 어렵다. 바다가 따뜻해지거나,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수십 년 단위로는 규칙성이 보이지만, 1년 단위로만 가도 들쭉날쭉하다. 우리가 건강검진 결과만으로 당장 내일 다치는 것을 예측하기 어려운 것과 같다. 과거 데이터 학습을 바탕으로 결과를 내놓는 AI가 예보에는 활용도가 낮은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이들이 있다. 기상청과 담당 기자들은 날씨가 변덕을 부릴 때면 분주해진다. 단 1시간 뒤의 전망이어도 초를 다투며 전한다.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예보관과 이를 쉽고 빠르게 전달하려 고민하는 기자들이 있다. 이렇게까지 거창하게 써야 책임감도 생길 것 아닌가. 올해는 모쪼록 무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안전한 일상의 ‘이유’가 되는 기사를 쓰기로 마음을 다진다.





WCC-SF₆ 국제 온실가스 교육훈련 10년: 전 지구 온실가스 관측 역량을 키우다

10년 동안, 제주도 서귀포의 작은 실험실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앉아 같은 질문을 나눠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한 온실가스 관측이 가능할까?” 한 해 한 해 쌓여온 이 배움과 교류의 시간은 이제 전 세계 관측자들을 이어주는 든든한 연결망이 되었습니다. WCC-SF₆ 교육훈련과정이 걸어온 1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자 합니다.



이수정 국립기상과학원

제주도 서귀포 실험실로 세계가 한자리에

기상청은 2012년 세계기상기구(WMO) 지구대기감시(GAW) 프로그램의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WCC-SF₆)를 유치하며 전 지구적 온실가스 관측을 이끄는 핵심 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더 많은 국가가 동일한 표준과 기술로 온실가스를 관측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제 교육훈련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기상청의 관측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온실가스 관측장비를 직접 다루고, 기기의 원리를 이해하며, 분석법을 배우는 이 과정은 어느새 ‘함께 성장하는 자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교육과정의 시작, 그리고 10년의 성장

지난 9차례의 교육과정에 참여한 17개국 73명의 수료생들은 이 프로그램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참가자들이 온전히 배우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감사했어요.”

과정 중 제 생일까지 축하해주신 건 잊지 못할 기억입니다.”
-Rebecca Malinda Chewitt-Lucas(바베이도스)



“다시 꼭 만나자.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
-Aneena Binoy(인도)

“배운 내용이 지금 맡은 업무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Lynwill Martin(남아프리카공화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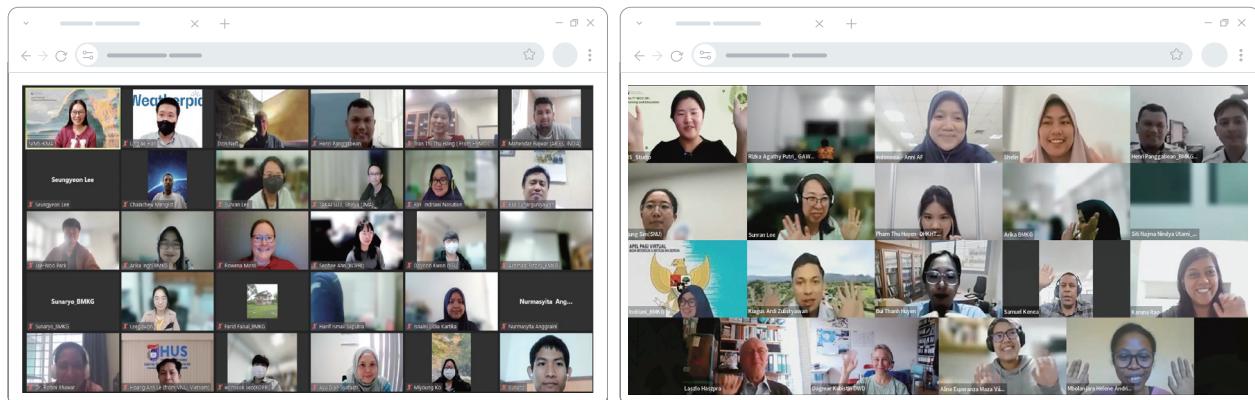
짧은 문장들이지만, 그 안에는 함께 배우고 서로를 응원했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은 교육에서 익힌 기술과 경험을 각자의 현장으로 돌아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기관의 자체 교육과정과 매뉴얼에 바로 반영했다”고 전했고, “실습 중심 교육이 실제 업무 역량을 눈에 띄게 높여주었다”는 평가도 많았습니다. 또한 한 참가자는 “이전 교육과정에 참여했던 기관 동료의 추천으로 참여했다”고 말해, 이 교육과정에 대한 신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이어진 이 교육훈련과정은 단순한 기술 실습을 넘어, 연구자들이 교류하고 함께 성장하는 국제적 협력의 장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의 축적은 각국 관측소의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전 세계 온실가스 관측 기반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그리고 새로운 길

하지만 2020년, 전 세계를 멈춰 세운 코로나19는 교육훈련의 현장 역시 멈추게 했습니다. 강의실과 실험실을 넘나들던 풍경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2022년, 처음으로 온라인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실습 대신 이론을 강화했고, 국제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온실가스 자료 활용 연구 사례를 함께 공유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현지시간으로 새벽에도 접속한 참여자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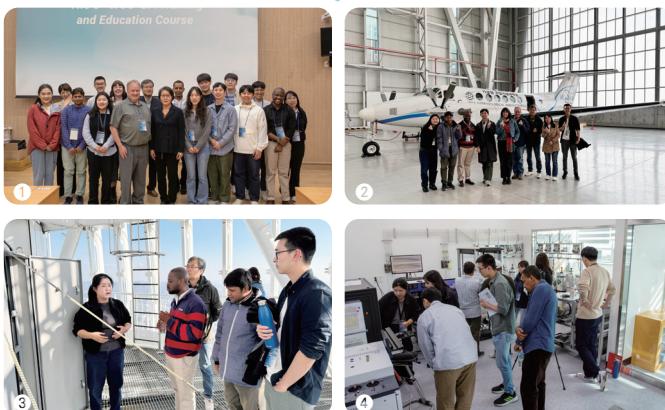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6차(왼쪽), 제7차(오른쪽) 교육훈련과정

있었고, 전 세계 관측기관의 전문가들은 적극적으로 강의를 맡았습니다. 화면 속이었지만 어느 해보다도 열정적인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고, 위기는 오히려 새로운 방식의 연대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다시 얼굴을 마주하고, 더 멀리 향하다

2024년, 마침내 대면 교육이 부활했습니다. 5년 만에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실험동에 울려퍼진 각국의 인사말들은 그동안의 공백을 잊게 할 만큼 따뜻했습니다. 약 80명의 지원자 중 10명을 선발하여 이론·실습·연구 발표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했고, 이러한 성과는 세계기상기구/지구대기감시(WMO/GAW) 역량 개발보고서(2024)에 대표적인 국제 역량 강화 기여 활동으로 소개되었습니다. 2025년에 개최된 9차 교육훈련과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참석자들의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5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된 제8차 온실가스 전문교육훈련과정



1. 개회식 2. 기상항공기 시설 견학
3. 롯데월드타워 온실가스 관측시설 견학 4. 온실가스 분석 실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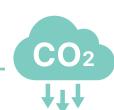
2025년 개최된 제9차 온실가스 전문교육훈련과정



1. 제주 고산 지구대기감시소 방문
2. 실험실 안전교육 및 실습

앞으로의 10년을 향한 발걸음

이 과정을 거쳐 간 수많은 관측자들은 지금 각국의 연구기관과 관측소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환경 속에서도 좋은 품질의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시 체계의 기반입니다. 앞으로의 10년은 더 다양한 국가의 참여, 더 체계적인 교육, 더 넓은 국제 협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난 10년의 발자취처럼, 앞으로의 시간도 더 나은 지구를 향한 여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청년인턴이 본 기상청 이야기: **청년인턴!** **REAL 공직에** **뛰어들다**

이효진 지진화산국 청년인턴

공무원은 딱딱하고 지루할 것 같다고요? 청년인턴으로서 뛰어든 공직 생활은 생각보다 부드럽고, 훨씬 더 웃음이 많고, 가끔은 감동적이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청년들에게 공공기관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따라 청년인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진보다 더 예측 불가했던 인턴 생활! REAL 공직 생활에 뛰어든 기상청 지진화산국 지진화산감시과 청년인턴의 성장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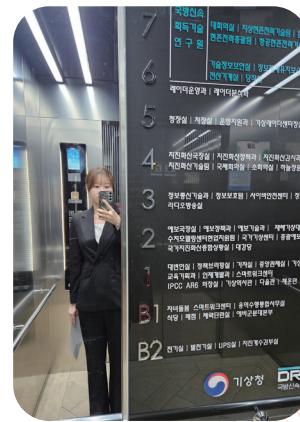


EP. 01 진원

지진화산국 청년인턴, 기상청에 첫발을 내딛다!

저는 평소 기상청의 역할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하늘과 땅을 읽어내는 기관이라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고 신기했습니다. 특히 지진화산감시과 청년인턴은 다른 부서에 비해 더 폭넓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매력을 느껴 지원했습니다. 또한, 학술적·실무적 역량을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싶었습니다.

지진화산국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아래의 지진화산감시과는 국내외 지진·지진해일·화산 발생 상황을 실시간 감시·분석하고, 지진 관련 특·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업무를 합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을 하고 싶었기에 지진화산감시과 청년인턴이 된 것은 최고의 결정인 것 같습니다.



설레는 첫 출근날
엘리베이터에서 찍은 사진

EP. 02 지진파

성장의 시작, 업무의 흐름 속에 녹아들다

저는 인턴 기간에 지진 관련 기술 자료 정리, 국·내외 지진 동향 조사와 홍보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했지만, 그중에서도 '지진연보'를 작성하던 기억이 가장 크게 남습니다. '지진연보'는 기상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간행물로, 한 해 동안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통계 및 특성을 분석·정리한 자료집입니다. '2025 지진연보'작성 업무를 지원하면서 모든 지질구조도의 통일감을 살리되 진앙 위치에 따라 지질구조가 잘 보이도록 유동적으로 지질구조도를 편집해야 하는 면이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차근차근 진행하면서 점차 숙련도를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실수를 피하기 위해 세심하게 집중하고 여러 번 검토한 끝에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그 과정에서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지진연보'라는 중요도가 높은 업무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너무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EP. 03 본진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5개월간 근무하면서 가장 기억에 크게 남는 지진은 2025년 7월 30일, 러시아 캄차카반도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8.8의 지진입니다. 이 지진으로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 지진파형
감시 스크린 앞에서 찍은 사진

감차카반도 인근뿐만 아니라 일본 태평양 연안 지역까지 지진해일이 발생했습니다. 지진해일은 해저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으로 인해 바닷물이 커다란 파도로 밀려오는 현상으로, 해안가 침수, 건물 파괴, 인명피해 등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미리 예측하고 대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당시 지진해일이 우리나라에 발생할지를 판단해야 하는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이처럼 급박하고 긴장감 넘치는 상황 속에서도 모두가 신속하게 지진과 지진해일을 감시·분석·예측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 긴장감 속에서도 일본 지진해일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정리하는 업무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침착하게 대응하는 지진화산감시과 직원분들의 모습을 통해 공직의 책임감을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EP. 04 여진

출장지에서 국경을 넘어 세계와 소통하다

쌀쌀한 가을, 기상청이 주최하고 일본 기상청(JMA)과 국내외 학계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국제 지진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이 워크숍은 지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대응 체계와 최신 연구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강의와 질의응답의 모습들은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지금껏 계속 고민해 왔던 수많은 진로 선택의 갈림길에서 용기와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더 깊이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되어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였고, 미래를 향한 선택에 있어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전문적인 내용이 많았기에 다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미국 지질조사국(USGS)의 ‘Did You Feel It?(DYFI)’ 프로그램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진을 느낀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피해 정도를 지도로 만드는 것으로, 접근성이 좋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한국형 DYFI’를 개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으며, 전 세계에서 공통된 목표를 위해 한자리에 모여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고, 제가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대한 큰 열정과 원동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국제 지진 워크숍’에서
통역기를 사용하여 발표를 들을
준비를 하는 사진



‘국제 지진 워크숍’에 참석한 사진

EP. 05 규모

첫 사회생활을 마무리하며, 나의 성장은 대규모!

절대 잊지 못할 5개월간의 큰 행운이었던 소중한 인턴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분들의 세세한 가르침 덕분에, 지진 분석·교육 운영·지진 모의훈련 등을 지원하면서 통계·문서 작업 등의 업무 역량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지진화산국 직원분들, 인턴 동기들과 좋은 관계를 쌓으며 인생 후배·동기로서 많이 배우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찬 바람 부는 겨울이었지만 가장 따뜻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감사함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었습니다.

EP. 06 대응

다음 흔들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첫 사회생활을 준비하거나 공직사회를 경험하고 싶은 청년들은 기상청 청년인턴에 도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여러 업무를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으며, 생각이 더 깊어지는 좋은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청년인턴에 도전해 보세요! 그 첫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전북을 달리는 기상관측차량의 1년간의 이야기

기상관측차량은 날씨를 관측하기 어려운 지역을 직접 찾아가 바람과 온도, 대기 상층을 측정하는, 말 그대로 '움직이는 관측소'다. 2025년, 전주기상지청의 기상관측차량이 본격적으로 현업에 투입되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험기상, 폭염, 산불 등 현장으로 바쁘게 달렸던 기상관측차량, 그 1년간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출발: 전북에 기상관측차량이 달리기 시작하다

새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는 2월, 전주기상지청의 새내기 기상관측차량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자체 훈련을 실시하였다. 산불이 났을 때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위험기상이 예상될 때 어떤 장비를 써야 하는지 하나씩 익혀 나갔다. 그리고 첫 임무로 임실 신덕 AWS(자동기상관측장비)의 풍향 이상 여부를 검증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기상관측차량 관측자료의 신뢰성을 입증하였다.



국민과 기상관측을 연결하는 기상관측차량

3월, 세계기상의 날 기념행사와 국립전북기상과학관-전북현대모터스FC 협업 행사에서 기상관측차량을 처음 선보였다. 시민들에게 장비들을 보여주고, 하늘 높이 레원존데를 띠웠다. 몇몇 아이들은 들뜬 목소리로 “이 풍선이 진짜 하늘 끝까지 가요?”라고 물으며 레원존데에 관심을 보였다. 하늘을 관측하는 일이 조금은 멀게 느껴졌던 사람들에게 기상관측차량이 ‘보이는 과학’을 선물한 시간이었다.



세계기상의 날 행사 관측 시연(사진 위)
전북현대모터스FC 협업 행사 관측 시연(사진 아래)



무주군 산불 현장 기상지원

현장으로 향하다: 산불과의 첫 대면

3월 27일, 전북 무주군 부남면 부근에 산불이 발생하였다. 기상관측차량은 곧바로 무주 산불 현장으로 출동하여 현장 관측을 수행하고 산림청, 지자체, 소방대원들에게 기상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산불 진화 작업에 필요한 바람 정보와 강수 가능성 등을 브리핑하였다.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은 “이 정보 덕분에 불길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기상관측차량의 존재 이유가 증명되는 순간이었고, 그날의 경험은 이후 더 큰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주었다.

위험기상 판단을 위한 효시를 쏘다

우박과 집중호우를 판단하기 위해 기상관측차량을 이용해 고종 특별관측을 수행하였다. 위험이 예측되는 장소로 이동하여 6시간 간격으로 레원존데를 비양하였다. 고도별로 기온, 습도, 풍향, 풍속을 측정하였고, 예보관들은 이를 대기의 불안정도 판단, 실황과 가장 유사한 모델 판별 등에 활용하였다. 장시간 출동이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예보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꼈다. 2025년 한 해 동안 기상관측차량은 총 16회 전북의 위험기상 현장으로 출동하였고, 60회의 고종 관측을 실시하였다.



위험기상 고종특별관측 수행



폭염을 측정하기 위해 도시로 향하다

여름철 폭염 정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전북 전주시 덕진구청과 협력해 기상관측차량을 살수차로 운영하고, 살수차 운영 전후의 노면온도 변화를 관측·분석하였다. 여름철 노면온도는 60°C 가까이 올랐는데, 살수 효과로 평균 6.5°C 하강하였고 가장 더운 정오 시간대에는 최대 8.4°C 하강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 결과를 전주시와 공유하였다. 대표적인 폭염정책의 효과를 우리 기상관측차량을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한 순간이었다.



여름철 살수차 운영 전후 노면온도 변화 관측

데이터가 남긴 발자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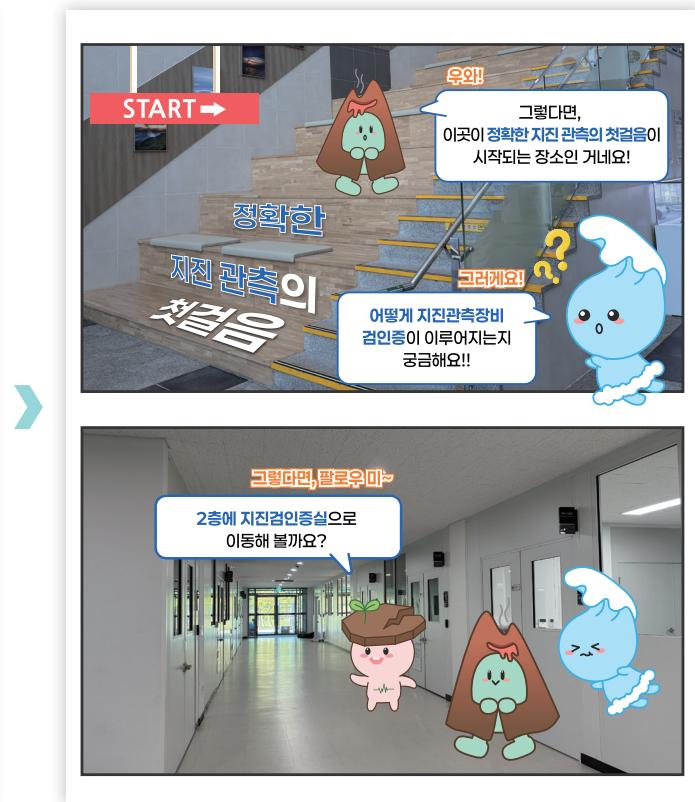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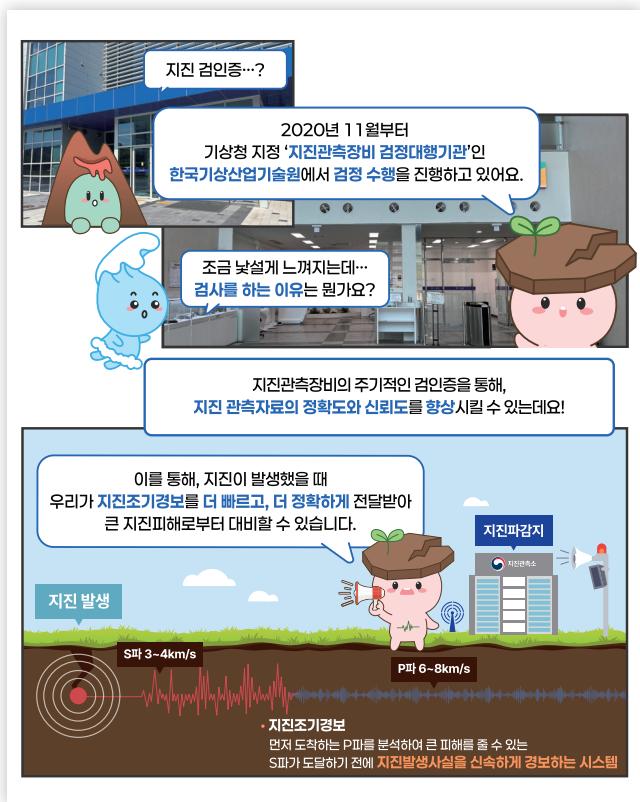
2025년 한 해 동안 전주기상지청의 새내기 기상관측차량은 100일 이상 출동하였고, 기록된 자료는 200쪽 이상의 보고서로 정리되었다. 이렇게 쌓인 데이터들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예보 정확도 향상, 정책자료, 학습데이터로 활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기상관측차량이 없었다면 놓쳤을 기상현상의 순간들을 수치로 남겼다는 점이다.

2026년에도 전북을 달릴 기상관측차량

2026년, 올해도 기상관측차량은 전북을 달린다. 이제 새내기 딱지를 떼어내고 작년보다 더 적극적으로 현장을 향해 달려갈 예정이다. 기상관측차량은 단순한 관측장비를 넘어 현업과 연구, 그리고 정책을 잇는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 기상관측차량은 하늘을 해석하는 또 하나의 눈이자, 예보관의 판단을 돋는 손이다. 전주기상지청의 기상관측차량이 올해는 어떤 현장에서 중요한 임무들을 수행해나갈지, 그 활약을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



Theme Story



※ 가진기: 구조를 등을 진동시키는 장치

이곳은 지진기록계 검정실 군요!

우선, 지진관측장비는 크게 지진센서와 지진기록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이곳은, 가진기를 이용해 지진센서의 성능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지진센서 검정실이에요!

지진 센서에 기록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여 자료를 저장·전송하는 지진기록계 검정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시각오차 검사 중)

함수발생기

오실로스코프

원자시계

GPS 수신기

(전압안정도 검사 중)

시각동기화 장치

수직가진기

수평가진기

디지털멀티미터

지진센서에 같은 자극을 줄 때마다 센서가 항상 같은 반응(측정값)을 보이는지 확인하는 갑도 검사부터 주파수응답 검사, 선형성 검사 등을 통해 지진센서의 성능·구조·기능에 대한 검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1층 로비에 위치한 지진체험관입니다!

이곳에는 기상지진장비인증센터에서
검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지진관측장비들이 전시되어 있고,

기상청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의 체계와 지진행동요령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지진체험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진체험관

정확한 지진 관측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지진 검인증실!

국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지진조기경보의 정확도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계속해서 전국의 지진관측장비를 검인증하고 있습니다!

클래식한 흙사...

지진검인증실이 궁금한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방문해서 견학해도 도나요?

기상청

클래식한 흙사...

학생들을 위한 교육기부 진로체험을 운영하고 있고,
일반 방문객도 사진 문의만 한다면
누구나 지진검인증실 견학이 가능해요!

위치: (28119)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56
전화: Tel. 070-5003-5636
이메일: sjchoi1124@kmiti.or.kr

사진으로 보는 기상청 소식

2026년 기상청 주요정책 추진계획
(12월 18일)



이미선 기상청장은 서울 동작구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2026년 기상청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브리핑하고, 언론의 질의에 답하였다. 기상청은 기후재난 대응체계 강화, 기후대응 지원 강화와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기상지원,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업무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선 기상청장,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 방문
(11월 27일)



이미선 기상청장은 전라남도 해남군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를 방문하여, 재생에너지 맞춤형 기상서비스 실현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기상관측장비를 점검하고, 실증단지 정책 현장에 있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기상청은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치 있는 기상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변모하는 기상청의 살아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전합니다.

「항공안전을 위한 난기류 현황 및 대책」 정책토론회
(11월 25일)



기상청은 국회의원회관에서 「항공안전을 위한 난기류 현황 및 대책」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난기류 발생 증가로 국민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난기류 대응 방안과 정책적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자 열렸다.

이미선 기상청장, 항공기상 안전정보
공유를 위한 민간 협력 강화 (12월 5일)



이미선 기상청장은 서울 강서구의 대한항공 본사에 방문하여 대한항공 우기홍 부회장, 유종석 부사장과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공역에서의 항공기상관측자료 공유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항공기상정보를 활용하는 종합통제센터를 찾아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Platform

기상청에 소식지 <하늘사랑> 외에도 다양한 채널과 콘텐츠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기상청 온라인 채널과 이달의 인기 있는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이달의 추천 콘텐츠

기상청과 소방청의 특별한 하루의 기록

두 기관의 업무 체험이라더니
업무로 매력 발산을, 저만 설레요?

#2대2 #미팅 #첫만남 #케미폭발

지난해 두 회사의 직원들이 만나 서로의 업무를 교류하며 공감과 호감을 쌓았던 '사옥미팅' 프로그램을 기억하시나요? 그 만남을 바탕으로, 기상청이 '청청미팅'이라는 새로운 리얼리티 업무 예능을 선보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로 소방청과 함께했는데요. 예컨대 예보관과 테토녀 소방관이 서로의 기관에 출근해 서로의 하루를 함께 체험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네 명의 남녀가 어떤 경험과 이야기를 나눴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첫인사부터 업무 현장 체험, 자연스러운 소통까지. 업무지만, 긴장감과 설렘이 공존했던 특별한 시간 속으로 초대할게요. '청청미팅' 첫 현장을 지금 기상청 유튜브에서 만나보세요!

웹진
kma.go.kr/kma

<하늘사랑>은 기상청 행정 누리집에서 전자파일(PDF)로 내려받아 볼 수 있으며, 소셜미디어(페이스북, X)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웹진 보기](#)

기상청 행정 누리집(홈페이지) > 알림·자료 > 기상간행물

소셜미디어
(SNS)

기상청은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날씨를 주제로 국민 여러분과 일상을 나누며 소통합니다. 특히, 날씨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고, 기상·기후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예로부터 생활 속 날씨 정보 활용법과 기상과학 풀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래 주소 또는 QR코드를 통해 기상청 SNS 채널을 방문하고, 친구가 되어주세요! 구독 또는 팔로우, 콘텐츠 '좋아요'를 누르고,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 주세요~

기상청 대표 SNS 채널



유튜브

youtube.com/@기상청



블로그

blog.naver.com/kma_131



X(트위터)

x.com/kma_skylove



인스타그램

instagram.com/kma_skylove



페이스북

facebook.com/kmaskylove



© 김은경

저녁빛이 잔잔한 바다에 스며들며 섬들의 윤곽을 금빛으로 감싸안습니다. 하루의 끝에서 떠오르는 이 고요한 장면은 마치 세상이 잠시 숨을 고르며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 한 줄기를 건네는 듯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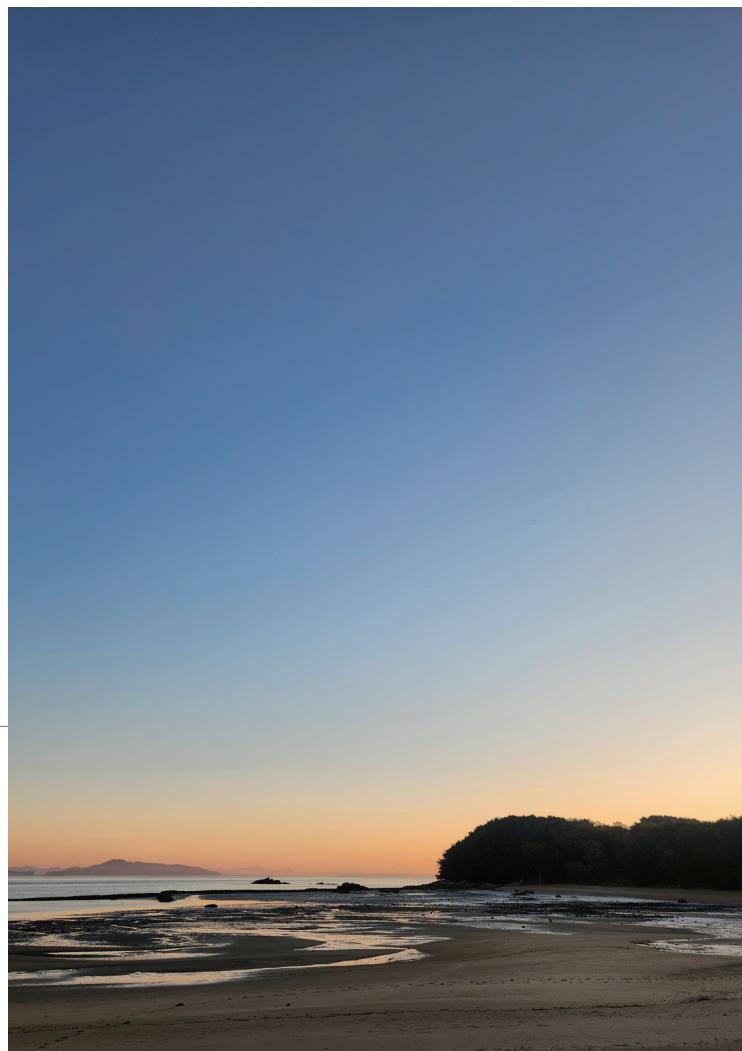
© 임지영

점점 어둠이 길어지는 요즘이지만, 짙푸른 하늘이 지나가면 연달아 검붉은 하늘이 찾아옵니다. 찰나의 이 순간만큼은 괜히 설레지 않으신가요?

© 홍용재

겨울의 입구 앞에서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아래 시작되는 아침은 경건한 마음을 가지게 만듭니다. 차갑게 들어오는 들숨에 다시금 깨닫는 계절의 시작. 늦어지는 일출과 함께 이렇게 겨울을 맞이하고, 따뜻하게 다가올 봄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같은 날씨 안에서도
저마다 다른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당신의 날씨는 어땠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들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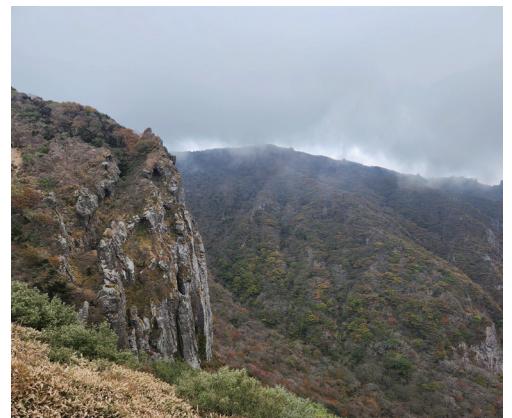
신정원

UFO를 닮은 렌즈구름이에요. 한라산 허리를 돌아 넘어간 바람이 소용돌이를 생성하며 만들어낸 구름이죠. 길 가다 우연히 바라봤을 때 눈길을 사로잡는 구름, 그래서 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자연이 준 선물입니다.



박순화

여행 중 구름 위, 비행기에서 바라본 하늘!
하얀 솜털을 걷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전양순

구름이 살포시 드리우는 산행길은 햇빛으로부터 산행을 한결 쉽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시기에 즐길 수 있는 등산의 묘미. 한라산의 절경을 시원한 바람과 함께 볼 수 있는 날씨여서 좋았습니다.

참여 방법

자신의 일상이 담긴 날씨 사진 한 장과 간단한 소개 멘트(100자 이하)를 이메일(kmanews@korea.kr)로 **1월 20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된 분께는 온누리상품권(1만 원)을 보내드립니다. 응모하실 때는 **성함·연락처·주소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기상청에서는 상품권 지급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항목(목적): 성함, 연락처, 주소(본인 확인 및 상품권 지급)
- 보유 및 이용기간: 1년(개인정보 수집·이용 후 즉시 파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위 사항은 상품권 지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할 경우 상품권 지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유의사항

본 코너에 선정된 사진은 발표 해당호에 한해 게재되며, 저작권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만약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저작권 규정을 어기 응모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겨울철 대설 위험은 ~~사전준비~~로 대비하세요



거주지역의 **재해 위험요소**
미리 파악하기



기상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특보 알림**을
받을 수 있는 **날씨알리미 앱**을 설치



비상시 지역 **대피장소**를 확인,
안전한 이동방법 등을 공유



재난 발생을 대비한 비상용품 준비

대설특보가 발표되면 ~~꼭~~ 지켜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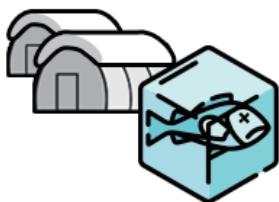
눈이 많이 올 때는 외출 자체
최신 기상정보 확인



내 집 앞, 주변 시설물 등
쌓인 눈 수시로 치우기



산간 고립 우려 지역은
비상용품 준비



농축수산 분야 언 피해 대비
및 시설물 붕괴 주의



외출 시 보온에 유의하고
대중교통 이용



차량 이용 시 월동용품 준비,
저속 운행 및 안전거리 확보